광주·전남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쇄도

아시아희망나무 긴급구호단 출국
병원들 의약품·후원금 기탁
광주시의회·신안·보성·해남군 등
구호성금 모금·모집 물품 전달
지진 일주일째…사망자 4만명 육박

광주지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사)아시아희망나무가 긴급구호단을 꾸려 13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현장으로 출국한데 이어 광주시의회, 신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 등 광주·전남지역의 튀르키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아시아희망나무는 이날 긴급구호단 파견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다. 긴급구호단 활동을 위해 조선대병원과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아이안과 등은 의약품과 함께 후원금을 희망나무측에 기탁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전원은 13일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모아 광주국제교류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신안군도 이날 구호성금 2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안군은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비 1만 달러(1300만원)와 군청 직원들이 모금한 8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하기로 했다. 또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매 행사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건물을 신축하고 재개장한 해남매일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경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경매 수익금은 전액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등으로 기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열린 경매 행사부터는 수익금을 지진 구호자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성군은 지난 12일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방한의류를 시급히 지원하기 위해 12개 읍·면장과 이장단협의회, 보성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 긴급회의를 갖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모집에 들어갔다. 군은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필요 물품으로 공개한 코트, 점퍼 등 겨울 방한용품의 접수 방안 등을 설명하고, 13~14일 이틀에 걸쳐 다향체육관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모은 물품을 현지에 신속히 보낸다는 계획이다. 장흥군도 1차로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인 및 어린이 방한의류 및 발열내의, 우비, 부츠, 운동화, 모자 등을 모집해 16일 인천공항 물류단지로 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 양국의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수가 2만96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시리아 내 정부통제 지역과 반군 장악 지역의 사망자가 9000명이 넘고, 부상자도 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총 사망자는 3만9000여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던졌다.

튀르키예에서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하타이주에선 어린 소녀 다나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0시간 만에 구조됐다.

같은 지역에서 임신부가 157시간 만에 극적으로 건물 잔해 밖으로 나왔다. 관영 TRT는 이날 새벽 하타이주에서 7개월 아기가 140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35세 튀르키예 남성이 149시간 만에 생환하는 등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골든 타임을 훌쩍 뛰어넘는 구조 사례가 이어졌다.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지진피해 이웃들이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 2월 14일~3월 9일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12154 ·농협은행 790-1256-2547-397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온라인 기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www. hopebridge.or.kr)
■ARS 기부: 062-700-0110(건당 1만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1544-9595

光州日報社·한국신문협회

광주시 휴일 단수 피해 가구·업소 보상 추진

2만 8000여세대 단수 피해
흐린물 등 317건 민원 접수

광주시가 지난 12~13일 상수도 단수 조치로 피해를 본 가구, 업소 등에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와 흐린 물 발생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수질사고 3건으로 피해를 입은 381세대에 대해 1억 1900여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파악해 수돗물 피해보상 심의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휴일인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광산구와 남구 2만 8000여세대 20여만명의 시민이 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 현재 단수 309건, 흐린물 9건 등 모두 317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번 대규모 단수 사태는 광주 남구 소재 덕남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연결되는 수돗물 유출 밸브의 노후화에 따른 베어링과 축 이탈로 밸브가 잠긴 뒤 열리지 않은 게 원인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덕남정수장 물 넘침으로 3만 7000t, 송·배수관 이물질 제거작업으로 2만t 등 5만 7000t의 물이 버려진 것으로 추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 서둘러야"

한신협·대신협 제정촉구 공동성명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서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중앙정부 주도 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것 ▲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전남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 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시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

광주 여성 초혼연령 31.04세…2000년 보다 5살 높아져

광주지역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늘면서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젠더 인포그래픽스 제17호 '통계로 보는 광주 여성'에 따르면 2021년 광주지역 여성 초혼 연령은 평균 31.04세였다. 이는 2000년 26.17세에서 약 5살 가량 높아진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여성의 초혼 연령이 꾸준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01년 '25~29세'이었으며 이후 10년 뒤인 2010년 30~34세, 또 2021년에는 35~39세인 것으로 집계돼 출산 나이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출산 연령대가 20대에서 20년 만에 30대 후반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땅,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2월 1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300,000,000원 중 금45,000,000원을 감소하여 금255,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4,500주를 유상 매수 후 임의 소각하여 발행주식의총수 30,000주를 25,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주식회사 현대종합중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67, 305호(화정동)
대표이사 김 애 경

분 실 공 고

발코니확장계약서: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470번지일원, 무등산자이&어울림1단지, 102동1504호
계약자 : 임 영 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2월 14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